

물과 칼:

공자의 서(恕)와 직(直)*

정 세 근**

주제분류 동양철학, 유가철학

주요어 인(仁), 서(恕), 직(直), 용(勇), 덕(德)

요약문

이 글은 공자의 순정한 사상을 찾아보기 위해 전통적인 고대사상과는 다른 그만의 특이점에 집중해서 몇몇 관념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용』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경서에서 강하게 부각된 적이 없었는데도 공자 스스로 ‘나의 길은 이것 하나로 꿰뚫었다’고 말하는 ‘서’(恕)가 대표적이다. 서는 인(仁)을 독자적으로 풀이한 공자만의 사상으로 보인다. 오늘날 말하는 관용 또는 관서(寬恕)의 정신으로 곧 용서의 정신이다.

그런데 『논어』 전편에서 강조되는 독특한 정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곧음’과 관련된 심리적 자세 또는 감정적 태도이다. 곧음은 솔직하고 강직하고 충직하고 우직한 마음가짐을 요구한다. 곧음 곧 ‘직’(直)은 전통적으로 주로 정직(正直)으로만 해석되는 바람에 해석의 가능성을 너무 좁혀 놓아 공자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했다. 직은 정직이라기보다는 솔직(率直)에 가깝다. 그리고 솔직은 강직(剛直)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공자의 특별한 사상을 용서와 솔직으로 볼 때, 우리는 그 둘이 서로 부딪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한쪽은 사랑을 베푸는 용서의 행위이고, 다른 한쪽은 원한을 되갚는 보복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물은 용서를, 칼은 복수를 상징한다. 그런데 물과 칼이 ‘사랑의 용기’와 만날 때 때로는 용서로, 때로는 복수로 드러난다. 공자에 따르면, 용기 있는 사람이 어진 사람은 아니지만 어진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 이 글은 제6차 신자학(新子學) 국제학술대회(강릉원주대, 2018.6.27.)에서 그 일부가 발표된 바 있다.

** 충북대 철학과 교수

<https://doi.org/10.33156/philos.2020.57..001>

있고, 어진 사람이 모두 용서하지는 않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진
사람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한다.

1. 원한을 갚아라

작지만 쉽게 벌어지는 오해가 있다. 공자(孔子)는 원한을 어떻게 갚으라고 말했을까? 흔히들 공자가 ‘덕으로 원한을 갚으라’고 말한 것 같지만, 실상은 거꾸로다. 공자는 말한다. ‘곧이곧대로 원한을 갚아라’(以直報怨).¹⁾

이 글의 주제는 바로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라’는 말로 보여주는 공자의 원칙과 그것이 담고 있는 사유체계를 조금이라도 드러내 보이는 데 있다. 어질고, 남을 생각하고, 부드럽게 보이는 공자의 모습 뒤에 이렇게 담대한 의식세계가 숨어있다니, 왜 그럴까? 공자에게 원한이란 무엇이고 용서란 무엇일까? 어떤 원한은 복수하고 어떤 원한은 용서해야 하는가?

『논어』(論語)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이가 ‘덕으로 원한을 갚아야 하는 것(以德報怨) 아닙니까?’라는 이미 답안이 포함된 질문을 하는데도 공자는 곧이곧대로 갚으라고 한다. ‘덕으로 원한을 갚는 것이 어떠냐’는 물음에 이를 반박하는 것이다. 공자의 말은 ‘이에 는 이, 눈에 는 눈’이라는 표현과 상통한다. 함무라비 법전의 1대1 대응의 원칙이다. 네가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너도 부러져야 한다는 것인데, 말이 좋아서 대응이지 그것은 철저한 보복(報復; revenge)의 원칙이다. 알다시피 보복도 형벌을 정당화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다. 그 나머지는 범죄방지와 같은 공리주의(功利主義)적인 기준이 형벌의 목적으로 성립한다.²⁾

-
- 1) 『論語』, 「憲問」: 或曰:「以德報怨, 何如?」子曰:「何以報德? 以直報怨, 以德報德。」
 2) 이런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사형은 고통 받는 죄수보다 장기적으로 본보기가 되지 못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물론 사형이라는 일순간의 처형이 장기간의 구금보다 고통의 양으로 보았을 때 ‘적다’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리주의는 ‘공리’(功利) 즉 이익을 꾀하는 것이지 ‘공리’(公利)와 같이 공공복리(公共福利) 정도로 이해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공리주의(功利主義)를 공리주의(公利主義)로 잘못 번역하는 순간, 공리주의가 마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

어떻게 공자는 이러한 복수(復讐; vengeance)를 용인할까? 피의 복수이고, 거친 것이며, 양자택일의 것인데 어떻게 이런 양갈음이 그의 사상체계 내에서 성립될까? 과연 공자는 어쭙 곧 인(仁)의 철학자가 아닌란 말인가?

우리들이 자주 놓치는 공자의 모습이 있다. 그가 인을 강조했다고 해서 그가 무턱대고 어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잘못이다. 그가 인을 강조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의 인 사상이 곧 그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알다시피 인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라는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왔던 ‘오상’(五常) 가운데 하나이지 공자 특유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상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지라도 장차 오행(五行) 관념으로 체계화되는 모종의 수비학(數秘學)적 사고로 발전한다. 인의예지신이 동서남북과 그 가운데로 표현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³⁾

는 것으로 착각되기 때문이다. 공공이란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공리(功利)처럼 ‘최대다수’(Bentham)나 ‘질적’(Mill)이라는 표현으로 규정되는 쾌락이 그것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대다수는 전체가 아니며, 쾌락이 아무리 질적으로 추구된다고 하더라도 기준 자체가 쾌락인 한 소수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개념어로만 공리주의(功利主義)라는 용어가 쓰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어에 가까운데도 이를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리(utility)란 유용, 실리, 실용, 실익, 유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재의 공리주의를 ‘유용주의’로 번역하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좋은 실례다. 경제학에서처럼 ‘효율주의’라는 번역이 분명하며 오해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공자보다는 묵자에 해당되는 사고다. 특히 맹자의 ‘리(利)를 버리고 의(義)를 좇으라’는 사고에서 공리주의는 철저히 배격된다. 여기서 공자의 보복주의는 서구의 공리주의자들과 상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맞았으니 너도 맞아야 된다’는 감정주의에 가깝다. 오늘날 말하는 ‘법감정’(法感情)이라는 개념과 통한다. 이것은 효율도, 처벌도, 예방도 아닌 철저한 감정적 보복주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당쟁과 같은 유가의 투쟁 속에서 비록 ‘의리’(義理)라는 이름으로 각색은 되어있었지만 실제로는 살벌하게 전개된 가문(家門)끼리의 복수심(復讐心)이 그런 감정주의를 엿보여준다.

- 3) 우리나라에서 흥인지문(興仁之門)을 동쪽에, 숭례문(崇禮門)은 남쪽에, 보신각(普信閣)을 그 중앙에 두어, 오상을 동서남북과 그 가운데에 배치하는 것. 오행과 공자

『논어』(論語)에 비록 110차례나 나오는 주요개념이 인이지만, 그리고 공자 자신도 ‘죽더라도 어짊을!’(殺身成仁)이라는 강한 뜻을 갖고⁴⁾ 학문의 모든 근원이 인에 있음을 분명히 하지만,⁵⁾ 그렇다고 해서 인이 곧 그가 창조해낸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자에게 ‘(강한) 의지’(志)와 관련된 이야기(지사志士, 독지篤志)에도 인이 꼭 나오고,⁶⁾ 또 그가 강조하는 ‘주례로 돌아가자’(克己復禮)는 주장의 목적이나 결과도 인의 실현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⁷⁾ 따라서 인이 그가 발전시킨 관념이라는 것은 성립된다. 그렇다고 해서 인이 곧 공자만의 고유사상이라는 논단은 가능해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인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관념이었고 그것을 확대해서 사상전반에 적용시킨 사람이 공자라는 설명은 맞다. 그러나 인을 곧바로 공자가 창조한 개념어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는 것이다. 공자 자신이 ‘새기긴 해도 짓지는 않겠다’(述而不作⁸⁾)는 원칙을 고수한 것을 돌이켜보자. 술해(術解)는 해도 창작(創作)은 하지 않겠다는 겸손한 학문적 태도와 전통에 대한 공경심을 상기해보라.

물론, 공자는 자신의 철학의 기본이 되는 군자론에서도 그 표준을 어짊으로 삼는다. ‘군자 가운데 어질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소인 가운데 어진 사람은 없다’⁹⁾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때 ‘어질지 않은 사람도 군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공자의 중심사상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

의 사고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오상은 윤리적인 표준이고, 오행은 우주론적 관념이다. 오상은 오경(五經)의 성립과 더불어 우리에게 다가왔고, 오행은 전국말의 추연(鄒衍)을 그 근원으로 한다.

- 4) 『論語』, 「衛靈公」: 子曰:「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 5) 『論語』, 「子張」: 子夏曰:「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仁在其中矣。」
- 6) 위에서 인용한 지사와 독지의 구절 외에도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다. 『論語』, 「里仁」: 子曰:「苟志於仁矣, 無惡也。」 / 『論語』, 「述而」: 子曰:「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游於藝。」
- 7) 『論語』, 「顏淵」: 顏淵問仁。子曰:「克己復禮為仁。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 8) 『論語』, 「述而」: 子曰:「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
- 9) 『論語』, 「憲問」: 子曰:「君子而不仁者有矣夫, 未有小人而仁者也。」

이 있을 수 있지만 그의 초점이 ‘소인은 어질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판단의 기준이 어둠에 있다는 것은 부정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군자라고 할 수 있지만 간혹 어둠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결국 공자에게서 인은 중심사상이긴 한데 그것이 선대로부터 빌려온 것이라면, 과연 그만의 독특한 사유는 없을까? 이런 물음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훨씬 공자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2. 용서하라

오행까지는 아니지만, 공자는 당시의 수비학적 분위기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자의 말은 아니지만 당시의 어법으로 ‘오곡’(五穀)¹⁰⁾이라는 표현도 『논어』에 나오고, 공자 스스로도 ‘오미’(五美)를 일컬기 때문이다.

오곡은 아무래도 오늘날과 같이 일상적으로 불리던 이름으로 우리가 먹고사는 일상적인 곡식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논어』에 특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오미는 공자가 스스로 일정하게 정의내리고 있어서 의미가 있다. 이 ‘다섯 가지 아름다움’은 ‘네 가지 싫어함’(四惡)과 더불어 등장한다. 오미는 군자의 다섯 가지 품덕인데, 공자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중용(中庸)의 사고를 담는다. 이른바 ‘지나치면 모자람만 같다’(過猶不及¹¹⁾)는 사유다. 공자는 말한다. “군자는 베풀면서도 다 써버리지 않고, 애쓰면서도 몰라준다고 원망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것이 있

10) 『論語』, 「微子」: 子路從而後, 遇丈人, 以杖荷蓑。子路問曰:「子見夫子乎?」丈人曰:「四體不勤, 五穀不分。孰為夫子?」植其杖而芸。子路拱而立。止子路宿, 殺雞為黍而食之, 見其二子焉。明日, 子路行以告。子曰:「隱者也。」

11) 『論語』, 「先進」: 子貢問:「師與商也孰賢?」子曰:「師也過, 商也不及。」曰:「然則師愈與?」子曰:「過猶不及。」

으면서도 탐욕스럽지 않고, 넉넉한 모습이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권위가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다.”¹²⁾

이런 식의 반어적인 표현은 『논어』 곳곳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공자식의 수사법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군자의 다섯 아름다움을 말하면서, 앞의 두 개는 남에게, 뒤의 두 개는 나에게, 뒤의 하나는 남과 나에게 모두 해당된다는 점이다. 엄격히 구별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타인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뉘는 것이다.

첫째, ‘군자는 베풀면서도 다 써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남에게 인정을 베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낭비하지는 않음을 가리킨다. 이것은 나의 남에 대한 감정의 절제를 말한다. ‘남에게 잘 해줘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몫까지 다주는 일은 없도록 해라.’

둘째, ‘군자는 애쓰면서도 몰라준다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무언가 바라지 말라는 것이다. 잘해주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은 나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을 위주로 말한다면 원망할 지경으로 남에게 퍼주지는 말라는 뜻을 담는다. ‘남에게 잘 해줘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몫까지 다주는 일은 없도록 해라.’¹³⁾

셋째, ‘군자는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서도 탐욕스럽지 않다’는 것은 군자라고 해서 욕망이 제거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대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군자도 사람이므로 욕구가 있을 수밖에

12) 『論語』, 「堯曰」: 子張問於孔子曰: 「何如斯可以從政矣?」 子曰: 「尊五美, 屏四惡, 斯可以從政矣。」 子張曰: 「何謂五美?」 子曰: 「君子惠而不費, 勞而不怨, 欲而不貪, 泰而不驕, 威而不猛。」

13) 이 문장이 ‘남을 위해 있는 대로 노력하고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라’고 해석될 때, 그것은 『논어』의 처음에서 강조하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하니 군자가 아니런가’(『論語』, 「學而」: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라는 구절과 상통한다. 군자의 표준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원망이라는 것이 남과 관련된 행위라는 점에서 단순히 자기수양의 영역만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없다. 그러나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욕망의 인정과 동시에 욕망의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다. ‘욕구를 실현하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탐심(貪心)에까지 이르면 안 된다.’

넷째, ‘군자는 넉넉한 모습이면서도 교만하지 않다’는 것은 모든 일에 태연자약(泰然自若)하게 자신감 있게 대하더라도 잘난 척하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안 됨을 말한다. 자신감은 자기의 태도이므로 나의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남에게 교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점은 먼저 자기에 있다. 남은 다음이다. 스스로 큰 꼴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남에게 건방지게 보일 것을 걱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스스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다섯째, ‘군자는 권위가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다’는 것은 스스로 권위를 갖추지만 남에게 그것을 사납게 드러내서는 안 됨을 가리킨다. 권위가 있다고 해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 잔혹하게 남을 대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자신에 대한 말이기도 하거니와 타인에 대한 말이기도 해서, 남과 나를 함께 일컫는다. ‘스스로는 권위를 갖추되, 남에게는 사납지 않게 대하라.’

이렇듯 공자가 어썩의 구체적인 덕목으로 다섯 가지를 내놓고, 나아가 이를 스스로 갖춰야 할 덕목, 남에게 베풀어야 할 덕목, 그리고 남과 내가 연관되는 덕목으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오상에 대한 숙지가 당시에 일반적이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결국 공자도 5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승계하며, 오상의 제1의인 인에 대해 숙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여기서 우리는 공자에게 물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공자만의 사상은 무엇이냐고. 공자가 아무리 해석은 해도 창작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¹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궁금했을 것이다. 선생의 해석의 원칙이 무엇인지, 해석의 방법은 무엇인지, 해석에서 취할 것과 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른바 선생의 필법(筆法)은 무엇인지 문도들은 알아차리고 있거나 알고 싶었을 것이다. 알아차리고 있는 제자는 공자에게 확인 받고 싶어 했을 것이고, 아직 모르는 제자들은 공자에게 물어보고 싶었을 것이다. 전통사상에 대한 해석과 확산이 아닌, 선생만의 고유한 사상은 무엇이냐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공자만의 언사다. ‘내려오는 것을 풀기만 하지 내 것을 짓지는 않겠다’(述而不作)고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했음에도 한 마디로 선생의 생각을 한 마디로 해달라는 물음에는 인이 아닌 다른 용어로 대답한다. 그것은 ‘용서’(恕)라고.

자공(子貢)이 ‘중신토록 행할 것을 한마디로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하자 공자는 ‘서’(恕) 자 하나를 준다. 그리고는 ‘스스로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¹⁵⁾고 덧붙인다.

‘스스로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바로 이 말, 공자의 이 위대한 격언이 동양사회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보라.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남도 하기 싫을 것이라는 감정의 원활한 전이와 그에 바탕을 둔 도덕률이 바로 공자의 윤리적 표준이었다.¹⁶⁾ 감정이라는 것을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대입시켜 볼 때 비로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판가름 난다는 이 주장은 단순한 지성적인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실행의 단계를 철저히 고려한 주장이었다. 이행과정(performance)을 염두에 둔 도덕적 판단을 공자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의 유가윤리는 실천에서 벌어지는 감정의 상호교환을 그 윤리적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

14)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 circle)을 말할 것도 없이 자기의 시대와 그 속에 사는 명운(命運)이라는 ‘지평’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15) 『論語』, 「衛靈公」: 子貢問曰:「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子曰:「其恕乎!己所不欲,勿施於人。」

16) 이점은 칸트와 일맥상통한다. 이른바 ‘나의 준칙이 남에게도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덕률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는 칸트의 윤리학적 선언처럼, 공자도 ‘나와 남을 공통된 표준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에서 이 말의 영향력은 막대했다. ‘스스로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것은 하나의 격률로 성립한다. 주관적인 준칙(maxim)을 넘어서는 상호주관적인 원리(principle)이자 보편적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¹⁷⁾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된 까닭이 바로 ‘용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라는 것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 자공의 물음은 ‘한 마디 말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이었는데 이에 대해 공자는 ‘그것은 용서이지’라고 대답하면서, 덧붙인 말이 바로 ‘스스로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 대답을 놓고, 자공에게 한정해서 한 것이라는 해석은 너무 좁다. 왜냐하면 『논어』의 편집과정에서 이 구절이 빠지지 않고 실렸으며, 『논어』의 다른 곳에서도 증자(曾子)가 공자의 하나로 꿰뚫는 길을 ‘충’(忠)자를 하나 덧붙여서 ‘충서’(忠恕)로 설명하기 때문이다.¹⁸⁾ 일반적으로 많이 착각하는 것처럼 ‘충서’는 공자가 직접적으로 구술한 표현이 아니라, 증자의 공자에 대한 판단이다.¹⁹⁾ 그것도 공자에게, 공자 앞에서, 공자의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의 문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다른 제자들에서 말하는 형식이다.

그렇다면 공자 자기만의 용어로 된 철학은 바로 용서 곧 너그러움(恕)에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공의 ‘한마디로’(一言)라는 요구에 공자가 이것을 친히 말했고, 공자가 스스로 ‘나의 길은 하나로 꿰뚫었다’라고 말할 때 직접 구술은 하지 않지만 증자의 입을 빌어 이것이 일컬어지기 때문이다.

17) 그것이 의(義)다. 맹자에서 특히 강조된다.

18) 『論語』, 「里仁」: 子曰:「參乎!吾道一以貫之。」曾子曰:「唯。」子曰。門人問曰:「何謂也?」曾子曰:「夫子之道,忠恕而已矣。」

19) 『禮記』의 「大學」과 「中庸」에 한 차례씩 나오며, 특히 「中庸」에는 ‘忠恕’라고 나온다.

공자의 언사는 상당히 비장하다. 제자의 요청에 한마디 외침으로 이것을 말하고 스스로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진리의 길이 이것 하나로 꿰뚫고 있다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자가 이 외마디에 그 말을 꾸미는 ‘충’(忠) 자를 덧붙임으로써 의미가 다소 방해받고 희석되고 있지만 『논어』 전편에 걸친 공자 자신만의 고유주장은 역시 ‘충’보다는 ‘서’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 여기서 충은 ‘정말로, 참마음으로, 진정코’ 정도로 서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주자의 해석 이래 이런 해석은 방해받아왔다.²⁰⁾

공자 자신만의 입장인 용서 곧 너그러움의 관념이 이끌어져 나오는 과정을 기술해보자. 이를 순서대로 말하면 이렇다.

먼저, 사람 속에는 5덕 가운데 하나로 어짊(仁)이 있다. 어짊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갖추고 있거나, 갖추야 할 내면의 태도다.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개념인 어짊에 대한 강조다. 그런데 제자 번지(樊遲)는 그것이 뭐냐고 생똥맞게 묻는다. 『논어』의 기록으로는 번지는 밑도 끝도 없이 갑작스레 인을 묻는 것처럼 묘사되어있다. 앞에 어떤 맥락도 기록해놓고 있지 않다. 그저 번지가 인을 물었다는 상황을 기록한 다음, 이에 공자가 대답하는 형식이다. 여기서 공자는 솔직하고 평이해진다. 공자의 대답은 구체적이다. ‘남을 사랑하라(愛人).’²¹⁾ 좀 더 풀이하면 공자는 ‘어짊이 있으면 무엇하나, 남에게 그것이 실현되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어짊이라는 개념어에 대한 숙지보다는 남을 사랑함으로써 어짊이 실현되는 것이야말로 공자가 바라고 있는 것이었다. 『논어』에 ‘남을 사랑하는 것’(愛人)이라는 표현은 위의 것을 포함하여 총 세 차례 나온다. 하나는, 큰 나라다우려면 ‘사람들을 아끼라’²²⁾는 것인데, 여기서 애인은 절용(節用)이라는 표현과 대구가 되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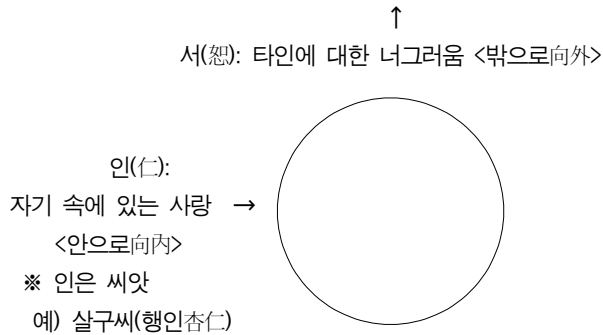
20) 정약용 정도만이 ‘충’을 ‘서’를 꾸며주는 것으로 본다.

21) 『論語』, 「顔淵」: 樊遲問仁。子曰:「愛人。」

22) 『論語』, 「學而」: 子曰:「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까워진다. 다른 하나는 ‘군자는 학문을 배우면 남을 사랑하며, 소인은 학문을 배우면 남을 다룬다’²³⁾는 것으로, 번지에 대한 공자의 대답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물을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냐고. 여기서 비로소 우리는 공자의 근본입장을 논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남에게 너그러운 것’이다. 『논어』에 단 2회밖에 나오지 않는 너그러움이지만, 공자의 생각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우리들이 갖춰야 할 것은 인이다. 그러나 인은 타인과 관련될 때 너그러움으로 드러난다. 내 속에는 인을 갖추고 밖으로는 서를 보여주어야 한다. 인이라는 내면의 가치를 외면적으로 발현시킬 때 바로 서라는 가치로 구체화된다.



어썩을 내 마음속의 씨앗으로 잘 간직하다가, 그 씨앗이 자라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너그러움이다. 어썩은 안으로 모으는 것이고, 너그러

23) 『論語』, 「陽貨」: 子之武城, 聞弦歌之聲。夫子莞爾而笑, 曰: 「割雞焉用牛刀?」 子游對曰: 「昔者偃也聞諸夫子曰: 『君子學道則愛人, 小人學道則易使也。』」 子曰: 「二三子! 偃之言是也。前言戲之耳。」

움은 밖으로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어썩은 마음속의 씨앗이고, 너그러움은 그것을 몸으로 보임이다. 인이 내화(內化) 내지 심화(心化)라면, 서는 외화(外化) 내지 체화(體化)다.

바로 이 너그러움이야말로 공자의 철학이라 할 수 있다. 너그러움은 공자의 언어로 된 공자만의 철학이자 그의 수제자가 인정한 스승의 철학인 것이다.

공자가 ‘자기의 철학이 하나로 꿰뚫어질 수 있다’면서 말없이 떠나자 당황스러운 문도들이 그 말에 ‘예’라고 답한 증자에게 ‘그 하나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충서일 뿐’(忠恕而已)이라고 말하는 증자의 태도는 단정적이라서 위험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스승의 길은 참으로 너그러움뿐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라. 증자는 공자만의 생각을 알고 있었다.

과연 이러한 충서 곧 충실(忠實)하고도 충직(忠直)한 용서란 무엇일까? 공자는 바로 이 물음에 ‘스스로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로 정확하게 대답하는데, 이는 곧 자기를 미루어 타인을 헤아리는 것이다.²⁴⁾ 전통윤리에서는 타인에 대한 강조는 많지 않았다. 인의예지신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덕목이라서 타인이 중심이 된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남과 관련되지만 나와 관계 속에서 그 중요성을 선택하라면 나이지 남이 아니다. 남을 어떻게 (대)하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찌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왕자(王者)의 윤리이자 제후(諸侯)의 덕목으로 그들이 인의예지신을 갖추면 나라가 잘 다스려질 것이라는 상당히 공리(功利)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24) 『論語』, 『衛靈公』: 子曰:「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바로 이점이 공자의 ‘서’를 주해할 때 주자가 ‘충’을 ‘진기’(盡己)로, ‘서’를 ‘추기급인’(推己及人)으로 나누어 충과 서를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되지만 공자에게 ‘충’은 주자의 의미처럼 쓰이고 있지 않다. 『논어』의 16차례 정도의 용법에서 ‘충’은 자기보다는 타인에게 충성 또는 충직함을 뜻한다. 우리말의 ‘충직’에도 ‘곧음’(直)의 의미가 들어감에 주의하자.

여기서 주안점 또는 강조점을 남에게 두는 것이 바로 공자다. 기존의 유자와는 달리, 공자에 이르러서야 나타나는 특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기 덕목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윤리적 태도가 유가적 입장에서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 남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²⁵⁾

개인윤리를 사회윤리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지, 전통적 덕목을 현실에서 좀 더 구체화하려는 의지, 아무나 될 수 없는 지도층의 가치가 아니라 지배받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의 처지와 고통을 이해하려는 의지가 공자에게서 드러난다. 이런 태도는 공자가 군자라는 표준을 계급적으로 보지 않고 인격적으로 보려하는 데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리하여 마침내 군자의 덕목으로 공자는 ‘너그러움-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원칙을 자공에게 건네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나를 용서하듯이 나도 남을 용서하는 것이 너그러움이다. 나에게서 너그럽고 남에게는 너그럽지 못한 것이 사람이다. 그런데 공자는 너에게 너그럽듯이 남에게도 너그러워야 한다고 말한다. 거꾸로 그것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을 것이라는 이해와 관용의 태도로 발전한다.

공자가 어짊을 조목조목 설명한 것도 좋은 예이다. 자장이 공자에게 인을 묻자 상세하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공경’, ‘관용’, ‘신뢰’, ‘민첩’, ‘시혜’가 그것인데,²⁶⁾ 여기서 보이는 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양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짊이란 남을 섬기고(공경), 남을 받아들이고(관용), 남을 믿고(신뢰), 남보다 먼저하고(민첩), 남에게 베풀라(시혜)는 것으로 모두 타인과 관련된 이야기다.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25) 『荀子』에도 공자가 ‘삼서’(三恕)를 말했다고 한다. 「法行」: 孔子曰:「君子有三恕: 有君不能事, 有臣而求其使, 非恕也; 有親不能報, 有子而求其孝, 非恕也; 有兄不能敬, 有弟而求其聽令, 非恕也。士明於此三恕, 則可以端身矣。」

26) 『論語』, 「陽貨」: 子張問仁於孔子。孔子曰:「能行五者於天下, 為仁矣。」請問之。曰:「恭、寬、信、敏、惠。恭則不侮, 寬則得眾, 信則人任焉, 敏則有功, 惠則足以使人。」

대접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군자의 다섯 가지 아름다움과 견주어볼 때, 한 걸음 더 나간 사고다. 오미 가운데 둘 정도는 절욕이나 자신감과 같이 개인윤리에 멈추는데, 여기서는 모두 타인에 관련되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⁷⁾

3. 솔직하라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공자 사상의 특색이 있다. 공자는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는 사람을 좋을 사람이라고 그럴까? 알다시피 공자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말을 듣지만,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말을 듣는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²⁸⁾ 이런 태도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나쁜 소리를 듣는 사람만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과 직결된다.²⁹⁾

사람마다 좋아하는 일이 있고 싫어하는 일이 있다. 개인의 이해관계도 다르지만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도 같지 않다. 게다가 좋은 일을 하려다보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고, 따라서 사람에 대한 평판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판만이 아니라 평판을 하는 사람에 대한 평판도 고려해야 한다는 원리다. 한마디로, 공자는 누구에게나 좋은 소리 듣는 그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군자의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좋은 소리 듣지 못할지라도 가야 할 길은 가는 사람이 군자라는 것이 공자의 지적이다. 어디서나 무골호인(無骨好人)도 안 되고, 언제나 말썽장이라도 안 된다.

27) 다만 이 구절은 『論語』, 「堯曰」에 유사하게 등장하여 일종의 정치적 언사로 쓰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所重：民、食、喪、祭。寬則得眾，信則民任焉，敏則有功，公則說。」

28) 『論語』, 「子路」: 子貢問曰：「鄉人皆好之，何如？」子曰：「未可也。」「鄉人皆惡之，何如？」子曰：「未可也。不如鄉人之善者好之，其不善者惡之。」

29) 『論語』, 「衛靈公」: 子曰：「眾惡之，必察焉；眾好之，必察焉。」

이러한 공자의 주장을 듣다보면 그의 언행이 상당히 ‘강직’(剛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강직이란 단어에 주목하자). 사람이 그저 좋기만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너그러움과 정면적으로 대립된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간단히 중용의 길을 가라고 넘어갈 수 있을까?

공자도 이런 문제를 고민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가운데로 가는 것’(中行)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내놓기 때문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영부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모하거나 소심한 사람이 낫다는 것이다. 무엇인가에 빠져있거나 어디에 인가 쏠려있으면, 그저 자기 길을 가거나 아예 함부로 일을 벌이지 않는다는 것이다.³⁰⁾

공자의 이런 말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당혹스럽게 느껴진다. 공자답지 않은 의외의 표현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어휘가 단순해서 여러 해석이 늘 뒤따르지만,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말하면 사회적으로는 아예 미치거나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낫다는 것이다. 편집적일지라도 그런 사람은 받아줄 수 있는데, 가운데 길로 제대로 가지도 못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사람을 공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어떤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덕은 없더라도 공을 이룰 수 있다.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기에 남들에게 덕을 베풀지는 못해도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못한 공을 이뤄내기 때문이다. 이는 좋은 일을 하겠다는 의도도 없이 남들과 상관없이 자기 일만 하다 보니 공적을 쌓은 경우다. 반면, 일을 벌이지 않는 사람은 공은 없더라도 덕은 이룰 수 있다. 일을 벌이지 않으면 제대로 해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이 생기지 않지만 말썽은 일어나지 않아 덕이 쌓인다. 이는 설령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을지라도 귀찮아서라도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니 말썽이 일어나지 않아 덕

30) 『論語』, 「子路」: 子曰:「不得中行而與之, 必也狂狷乎! 狂者進取, 狷者有所不為也。」

을 쌓은 경우다.

공자는 이럴 때는 상당히 철저하다. 심지어 과격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다. 비겁함이나 애매함과는 거리가 멀다. 생각이 명확하고 엄정하다. 부드러움과는 동떨어진 날카로움이다.

이런 공자의 경향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그의 특이점이라 할 수 있는 ‘바름’(直)의 사상이다. 그런데 이 바름 곧 ‘직’(直)으로 표현될 수 있는 말은 여럿이라서 위에서 말한 ‘강직’ 이외에도 ‘정직’(正直)을 비롯해서 ‘솔직’(率直), ‘충직’(忠直), ‘우직’(愚直) 등이 있으며, 공자는 이런 여러 가지 용법에 따른 구별을 언어유희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그것이 바로 섭공과 공자의 대화에서 나오는 직 자의 서로 다른 용례다.

섭공은 말한다. “우리 동네는 곧아서 아버지가 양을 훔치면 아들이 증인이 되지요.” 그러자 공자가 말했다. “우리 동네 곧음은 이것과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숨겨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숨겨줍니다. 곧음은 그 안에 있지요.” 이렇게 ‘곧음’으로만 말하면 공자의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섭공은 ‘정직함’으로 ‘직’을 말하지만 공자는 ‘솔직함’으로 ‘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직도 좋지만 솔직은 더 좋다는 것이다. 특히 혈연관계에서만큼은 정직보다는 솔직이 우선된다는 주장이다. 공자도 이렇게 언어유희를 통해 자기의 주장을 편다. 우리 말로 바꾸면 ‘곧이곧대로’가 좋다. 다시 새긴다.

‘섭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우리 동네는 곧이곧대로라서 아버지가 양을 훔치면 아들이 증인이 되지요.” 그러자 공자가 말했다. “우리 동네는 곧이곧대로는 이것과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숨겨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숨겨줍니다. 곧이곧대로라는 것은 그 안에 있지요.”’³¹⁾

곧이곧대로 증인도 설 수 있지만, 곧이곧대로 은닉도 할 수 있다. 공자

31) 『論語』, 「子路」: 葉公語孔子曰: 「吾黨有直躬者, 其父攘羊, 而子證之。」孔子曰: 「吾黨之直者異於是。父為子隱, 子為父隱, 直在其中矣。」

의 의도는 정직보다는 솔직히 낫다는 것이다. 정직하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숨기고 싶은 것도 솔직한 마음이다. 그것이 핏줄이고, 공자는 핏줄이 바탕이 된 나라를 꿈꿨다. 핏줄이 모여 집이 되고, 집이 모여 나라가 된다. 따라서 가족 간의 유대는 철저하게 옹호되어도 좋다.³²⁾

『논어』에 직 자는 16번 나온다. 그런데 직의 의미는 사실상 정직보다는 솔직에 가깝다. 하다못해 정직보다는 강직(剛直)에 가깝다. 흔히 정직으로도 새기지만, 오히려 솔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곧은 것과 흰 것’이라는 상대적인 표현 이외에는 거의 그렇다. 중립적으로 읽기 위해 번역은 ‘곧다’로 한다.

-공자는 말했다. ‘누가 미생고를 곧다고 했는가? 누가 식초를 빌려 달라고 하니, 이웃집에서 빌려다 그에게 주었다.’³³⁾

자기 집에 없으면 그만이지, 남에게 빌려서 주는 것은 솔직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과장일 수도 있고, 지나친 감정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생고가 거짓말을 했다고는 할 수 없고 거짓말이라도 선의의 거짓말이므로, 공자의 의중은 정직보다는 솔직하지 못함을 나무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래의 구절은 해석상의 문제가 많이 따른다. 공자의 원의가 잘 들어나지 않기 때문인데, 주석가들이 ‘정직’으로 풀이하면서 더욱 그러하다. 새롭지만 이렇게도 풀 수 있다.

-공자는 말했다. ‘사람의 삶은 곧은 것이다. 그물에 얽매는 삶은 (을) 운 좋게 면했다.’³⁴⁾

32) 이 글의 주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곧 공자가 강조하는 종법(宗法)의 규율이고 그것의 엄정함이다.

33) 『論語』, 「公治長」: 子曰:「孰謂微生高直? 或乞醢焉, 乞諸其鄰而與之。」

34) 『論語』, 「雍也」: 子曰:「人之生也直, 罔之生也幸而免。」

이때 정직으로 풀이하면 인간의 본성은 본래 정직하다는 성선의 논의로 나가지만, 위의 해석으로 보면 ‘사람은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물에 걸린 삶은 다행히도 면했다’라고 해석된다. 사람이 직성(直性)대로 살고 엽매이는 삶을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직은 직성으로 정직보다는 솔직에 가깝다.

그런데 뒷 구절을 ‘운 좋게도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읽으면 다른 이야기가 된다. 사람은 직성대로 사는데,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엽매이는 삶이라서 오히려 행운이고 동물처럼 살지 않고 예화(禮化)가 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

많은 해석처럼 뒷 문장을 ‘정직하지 않은 삶은 운 좋게 살아남은 것’이라고 하면, ‘정직하면 살아남는 것’이 되어 무엇을 뜻하는지 애매하다. 직을 정직에 한정해본 결과다.

직은 예(禮)를 필요조건으로 삼는다는 문장을 보자.

-공자는 말했다. ‘공손하면서도 예가 없으면 힘들어지고, 신중하면서도 예가 없으면 눈치만보고, 용기가 있으면서도 예가 없으면 어지러워지고, 끈으면서도 예가 없으면 일이 엉킨다.’³⁵⁾

이 문장에서는 공자의 예에 대한 강조가 도드라진다. 그런데 ‘정직하면서도 예가 없으면 일이 엉킨다’는 것은 이상하다. 정직함은 그것 자체로 인간에게 환영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끈음을 솔직으로 보면 그것이 왜 예의 지도 아래 있어야 되는가가 잘 드러난다. 솔직한 것은 좋는데 예를 모르면 일이 꼬여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공자는 말했다. ‘미쳤으면서 솔직하지 않고, 미련하면서도 순박하

35) 『論語』, 「泰伯」: 子曰:「恭而無禮則勞, 慎而無禮則蕙, 勇而無禮則亂, 直而無禮則絞。」

지 않고, 일도 못하면서 믿음도 주지 못하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줄 모르겠다.’³⁶⁾

사람마다 특색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도 제멋대로 하는 놈은 솔직한 데가 있고, 미련한 놈은 순박한 데가 있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놈은 인간성이라도 믿음직한 데가 있다. 그런데 멋대로 하면서도 숨기는 것이 있거나, 미련하면서도 약아빠지거나, 일도 못하면서도 믿음직하지 못하면 낭패다.

-공자는 말했다. 통달한 선비란 바탕이 곧아 의를 좋아한다.

정직한 것이 의로운 것이긴 하다. 그러나 의를 좋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직이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의를 좋아하기 위해서는 그의 바탕이 강직(剛直)해야 한다. 강직해야 의를 실천할 수 있지, 정직하다고 실천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곧음은 정직이 아니라 강직함을 가리키는데, 사람의 바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정직보다는 성품의 솔직에 가깝다.

-공자는 말했다. ‘곧구나! 사어는. 나라에 도가 있어도 화살 같고, 나라에 도가 없어도 화살같다.’³⁷⁾

여기서 화살은 똑바로 날아가는 것을 상징한다. 사어(史魚)가 역사기술을 그만큼 올곧게 지켜냈다는 것인데, 여기서의 곧음도 사실상 정직보다는 강직(剛直)에 가깝다. 강직해야 정직하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가로서 정직은 말할 필요도 없는 덕목이지만, 강직은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목숨을 걸고 솔직하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덕목

36) 『論語』, 「泰伯」: 子曰: 「狂而不直, 侗而不愿, 悖而不信, 吾不知之矣。」

37) 『論語』, 「衛靈公」: 子曰: 「直哉史魚! 邦有道, 如矢; 邦無道, 如矢。」

임을 공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삼대가 곧은 길을 가는 까닭’³⁸⁾, ‘곧은 벗’³⁹⁾, ‘곧은 것만 좋아하고 배우지 않으면 일이 영킨다’(이것은 위에서 말한 「태백」의 ‘곧으면서도 예가 없으면 일이 영킨다’와 같다)⁴⁰⁾, ‘옛날에 어리석은 놈은 곧기라도 했는데 요즘 어리석은 놈은 속이기까지 한다’⁴¹⁾(이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우직愚直’이다), ‘(공자가 자공에게 싫어하는 것을 묻자) 까발리는 것을 곧다고 하는 것’⁴²⁾ 등등의 표현이 있는데, 이 모두 정직보다는 강직에 가깝다. 그리고는 ‘곧음’(直)과 ‘뺨’(枉)이 상대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편다거나 굽은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간다는 용법이다. 3회 출현하는데,⁴³⁾ 아래는 대표적인 예다.

-(공자가 애공에게 말했다.) 바른 것을 들어 여러 흰 것을 고치면 백성이 따르고, 흰 것으로 여러 바른 것을 고치면 백성이 따르지 않습니다.⁴⁴⁾

- 38) 『論語』, 「衛靈公」: 子曰:「吾之於人也, 誰毀誰譽? 如有所譽者, 其有所試矣。斯民也, 三代之所以直道而行也。」
- 39) 『論語』, 「季氏」: 孔子曰:「益者三友, 損者三友。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
- 40) 『論語』, 「陽貨」: 子曰:「由也, 女聞六言六蔽矣乎?」對曰:「未也。」「居! 吾語女。好仁不好學, 其蔽也愚; 好知不好學, 其蔽也蕩; 好信不好學, 其蔽也賊; 好直不好學, 其蔽也絞; 好勇不好學, 其蔽也亂; 好剛不好學, 其蔽也狂。」
- 41) 『論語』, 「陽貨」: 子曰:「古者民有三疾, 今也或是之亡也。古之狂也肆, 今之狂也蕩; 古之矜也廉, 今之矜也忿戾; 古之愚也直, 今之愚也詐而已矣。」
- 42) 『論語』, 「陽貨」: 子貢曰:「君子亦有惡乎?」子曰:「有惡: 惡稱人之惡者, 惡居下流而訕上者, 惡勇而無禮者, 惡果敢而窒者。」曰:「賜也亦有惡乎?」曰:「惡徼以為知者, 惡不孫以為勇者, 惡訐以為直者。」
- 43) 『論語』, 「衛靈公」: 哀公問曰:「何為則民服?」孔子對曰:「舉直錯諸枉, 則民服; 舉枉錯諸直, 則民不服。」 / 「顏淵」: 子曰:「舉直錯諸枉, 能使枉者直。」樊遲退, 見子夏。曰:「鄉也吾見於夫子而問知, 子曰, 『舉直錯諸枉, 能使枉者直』, 何謂也?」 / 「微子」: 柳下惠為士師, 三黜。人曰:「子未可以去乎?」曰:「直道而事人, 焉往而不三黜? 枉道而事人, 何必去父母之邦。」
- 44) 『論語』, 「為政」: 哀公問曰:「何為則民服?」孔子對曰:「舉直錯諸枉, 則民服; 舉枉

솔직이 철학의 원리라는 설명은 현대철학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심지어 정밀하게 이론화되는 주자학에서도 솔직을 사유의 밑바닥에 까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것은 도덕적 엄숙주의에 바탕한 내면의 철학이라는 한계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외물과 접하지 않았을 때의 미발(未發)이 선(善)이기 때문에, 솔직이라는 이발(已發)의 상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솔직함이 상황에 맞을 때 그것은 ‘화’(和)의 이상적 상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화’(不和)가 되는 위험성이 늘 도사리기 때문에, 주자학에서 솔직이 주제가 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공자의 이론은 많은 동양의 철학이 그러하듯이 실천학이다. 실천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감정을 알아 그것을 고르고 북돋아주어야 하는 것이 제1의 임무요 방안이어야 했다. 솔직이야말로 공자가 강조한 감정의 소환이요, 도덕심의 발로였다. 감정에 솔직한 도덕이 바로 유가윤리의 근간이 됨을 공자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사랑이라는 용기

공자에게 너그러움 곧 서(恕)가 물이었다면, 곧이곧대로 곧 직(直)은 칼이었다. 여기서 물은 화해, 조화, 포용을 뜻하고 칼은 투쟁, 원칙, 단죄를 가리킨다.

타인을 용서해야 하지만, 원한을 쌓고 지낼 수는 없으니 솔직하게 풀기도 해야 한다. 함무라비 법전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의 원칙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며, 현대 형법도 교화나 범죄예방과 더불어 피해자의 보복 심리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공자가 ‘곧이곧대로 원한을 갚아라’(以直報怨)라고 말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자는 인간의 감정을 온전

錯諸直，則民不服。」

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유학의 본령에 자리 잡는다.

그럼에도 ‘용서하라’와 ‘솔직하라’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게다가 타인과의 원한 문제에서 용서는 물이고 솔직은 칼인 반면, 부모자식간 문제에서 정직은 칼이고 솔직은 물이 된다. 그런 점에서 ‘죽이고 싶더라도 너 그러움을 베푸는 것’과 ‘차라리 솔직하게 원한을 갚는 것’ 사이에는 꽤나 큰 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봐주기와 되갚기는 쉽게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로 보인다. 공자는 어진 이는 반드시 용감하다고 전제한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용기가 나온다는 말이다. 그러나 용기 있는 자가 반드시 어질지는 않다는 것이다.⁴⁵⁾ 현대적으로 말하면, 사랑은 용기의 충분조건이다. 그러나 용기는 사랑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못된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솔직하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사랑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결국 그 사랑이 용기로 들어나 서로 숨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주검에 모래를 뿌려준 오이디푸스의 딸 안티고네의 용기와 같이 말이다. 그녀는 솔직했고, 솔직했기에 용감했다. 그녀의 표현대로라면 ‘가족의 매장은 신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였다. 공자의 사상을 빌리자면 ‘가족의 주검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솔직한 것이며, 그것은 어떤 법률로도 통제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였다. 또한 안티고네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강직했다. 공자는 그녀의 강직함을 사랑했을 것이다. 공자를 이은 맹자는 이후에 이런 감정을 잘 살려 ‘차마 어쩔 수 없는 마음’(不忍人之心; 不忍之心)이라 정식화했다.⁴⁶⁾ 공자의 단어를 넣어 우리들이

45) 『論語』, 「憲問」: 子曰: 「有德者, 必有言。有言者, 不必有德。仁者, 必有勇。勇者, 不必有仁。」

46) 『孟子』, 「公孫丑上」: 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先王有不忍人之心, 斯有不忍人之政矣。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治天下可運之掌上。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

자주 쓰는 용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직성’(直性)이다. 안티고네는 오빠를 장례지내야 직성이 풀릴 수 있었다.

공자가 국가보안법 가운데 불고지죄(不告知罪)를 반대할 것이라는 추론도 여기서 가능하다. 혈연이라 할지라도 고발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불고지죄는 솔직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숨겨주고, 아들이 아버지를 숨겨주는 것이야말로 솔직한 것인데 이런 불고지죄 조항은 혈연간의 솔직을 송두리째 무시하기 때문이다.⁴⁷⁾

사실 용서도 용기다. 공자의 말을 빗대자면, 용기 있는 사람이 다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서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을 나열하라면, 거칠지만 ‘용(勇) → 인(仁) → 서(恕)’가 아닐까 한다. 그만큼 남을 용서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다. 어진 사람이 용기가 없을 수 없지만 용기 있는 사람이 어질지 않을 수 있듯이, 용서하는 사람이 어질지 않을 수 없지만 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용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한다.

노자도 공자와 비슷한 말을 한다. 자기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면서, 그 가운데 하나인 ‘자애를 지닌 사람은 용감하다’(慈故能勇)고 한다.⁴⁸⁾ 그러면서 오늘날 자애를 버리고 용감만하니 죽음으로 이룬다고 경고한다.⁴⁹⁾ 이런 맥락에서 ‘원한을 덕으로 갚으라’(報怨以德)⁵⁰⁾는 노자의

心者，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皆有怵惕惻隱之心。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非惡其聲而然也。」 맹자가 직접 서를 언급하는 구절은 아래와 같다. 「盡心上」: 孟子曰:「萬物皆備於我矣。反身而誠，樂莫大焉。強恕而行，求仁莫近焉。」

47) 정세근, 「문제현실론」, 박완규 엮음 『이땅의 철학자 무엇을 생각하는가』 (서울: 철학과현실, 2005) 참조

48) 『老子』, 66.2: 「我有三寶，持而保之。一曰慈，二曰儉，三曰不敢為天下先。慈故能勇；儉故能廣；不敢為天下先，故能成器長。」

49) 『老子』, 66.3: 「今舍慈且勇；舍儉且廣；舍後且先；死矣！」

50) 『老子』, 63.2.

주장은 표면상으로는 공자와 정반대지만 용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잘 통한다.

조선유학사의 거장인 송시열이 직(直) 자에 매달린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야 온전히 이해가 가능하다. 나아가 직의 의미는 공자가 감정의 철학을 열고 있다는 점을 재삼 확인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禮記』

『大學』

『中庸』

『論語』

『孟子』

『荀子』

『老子』

정세근, 「문제현실론」, 박완규 엮음. 『이 땅의 철학자 무엇을 생각하는가』,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5.

**Water and Knife:
Generosity and Straightforwardness in the Philosophy
of Confucius**

Jeong, Se Geun (Chungbuk National Univ.)

This paper is looking for the pure thought of Confucius, focusing on his unique notions which are differ from traditional thinking in ancient time. Generosity(shu) which has never been accentuated in the established classics except *The Doctrine of the Mean* was emphasized by Confucius, for example, ‘my doctrine is that of an all-pervading unity.’ I think his generosity is a creative interpretation on benevolence (ren) which came from five virtues. It is a spirit of forgiveness which includes tolerance.

There is a very special sentiment that is embossed in *The Analects*, which is a psychological posture or emotional attitude related with straightforwardness(zhi). It inquires a position of mind/heart that is upright, plain, frank, candid, and honest. The straightforwardness in the context of Confucius means not only honesty but also frankness. Son can hide his father even though his father is criminal.

Forgiveness and straightforwardness in the philosophy of Confucius would be contradictory because one is a kind of mercy, another is a kind of revenge.

On this paper, water symbolizes forgiveness, and knife revenge. When each of water and knife meet bravery of love, sometimes it brings forgiveness or straightforwardness. I could forgive because of loving people, at times also revenge my love on a person. According

철학탐구 제57집

to Confucius, a man who is brave may love people; a man who loves people may forgive the others.

Key words: benevolence(ren), generosity(shu), straightforwardness(zhi), bravery(yong), virtue(de)

정세근 e-mail: sgjeong@cbu.ac.kr

투 고 일	2020년 01월 23일
심 사 일	2020년 02월 14일
게재확정	2020년 02월 14일